

이탈리안 라이그라스(IRG) 전과정 국산화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강화

추진배경

- [현황] 국산 풀사료 생산·공급 기반 미흡으로 수입 의존과 품질 불균일 지속
 - IRG 재배 증가에도 국산 사용률 25% 수준, 장마철(6월) 채종으로 종자 자급 어려움
 - 수확기 강우로 건조 생산이 제한되고, 담근먹이 품질이 불균일함
- [필요성] 안정적 수급을 위한 ‘품종개발-종자생산-건초가공’ 전주기 기술 확보 필요

주요성과

- [기술개발] 국내 최초 풀사료 전주기 기술체계 구축
 - (품종개발) 수입 IRG 품종 대비 생산성과 품질이 우수한 ‘스파이더’ 품종 개발
 - * 생산성: 건물 10.1톤/ha, 수입품종(플로리다 80) 대비 14% 증수
 - (종자생산) 국내 최초 사료작물 종자 건조기 개발 → 종자 자급 가능
 - * 2.5톤/ha(수분 40% ↑) → 10시간 건조 → 2톤(수분 10~15%)
 - (건초생산) 열풍건초 생산 시스템 개발 → 건초 자급 기반 조성
 - * 예건(수분 30~50%) 후 열풍건초기 기당 4~10톤/일(수분 20% ↓) 생산
- [현장보급] 열풍건초 보급 확대 및 마사회 유통협력 구축
 - (현장보급) 열풍건초 생산시스템 현장 보급(16기, 경주·익산 등) 신기술보급사업
 - (유통모델) 승용마 대상 열풍건초 유통모델 구축(399톤 계약) 축산원-마사회-익산시-승마장-경영체

파급효과

- [기술적효과] 국내 환경에 적합한 풀사료 전주기 기술 개발로 자급 기반 마련
 - (품종개발) IRG 신품종 개발 → 수입품종 대체
 - (종자생산) 종자 건조기 1기당 60톤/년 생산 → 기존 대비 3.75배 향상
 - (열풍건초) 열풍건초기(건초생산량 8톤/일) 1기 운영 → 연 5.6억원 순이익
- [경제적효과] 국내 풀사료 생산기반 구축으로 공급 안정 및 경쟁력 강화
 - (품종개발) 수입품종 대비 생산성 14% 향상 → ha당 45만원 수익 증대
 - (종자생산) 종자건조기 129기 보급 → IRG 종자 100% 자급(약 290억원 규모)
 - (열풍건초) 열풍건초기 38기 보급 → 국산건초 100% 자급(수입건초 90만톤 대체)



IRG 신품종 개발



사료작물 종자건조기 개발



열풍건초 생산시스템 구축